

## 부활의 증인들

### 고전15:1~11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는 곳 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미래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고 누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은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자로 추앙받는 수많은 종교창시자들이 이 땅에서 살다갔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만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절망과 저주와 고통에 대한 승리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죽을 것도 압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는 이해해도 부활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죽음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사건이기에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축복,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언대로 성취되었다고 선포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데는 3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지셨는데 예수님이 밤중에 부활하셨다면 사람들

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실을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이 경과함으로 해서 예수는 진짜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죽었다가 금방 살아난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 믿음도 필요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3일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승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3일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실패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아는 자만이 희망을 알고 고난을 겪은 자만이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가 다시 살아난 기쁨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 패배할 줄 알았는데 승리했다는 놀라운 감격이 3일의 감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와 열두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5백여 제자들과 사도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보이시고 저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1966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기도하던 밤 그분은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저를 만져주십니다.

### **부활의 메시지 구원과 선교**

그냥 어떤 분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옆에 지금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을 사도바울은 은혜라고 합니다. 9,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를 만난 사건은 은혜입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버트란 러셀은 ‘나는 왜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그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친히 만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는 3년 간 예수님께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무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죽음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년 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았기에 슬픔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서 그를 구원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자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었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 관념이 아니라, 실체의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없어도 앎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충만 하십시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을 때 베드로처럼 눈을 뜨게 되고 초자연적인 힘이 자신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 중 결론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를 전해라'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최대의 이상은 사회 참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십자가는 사회참여까지 데려가고 부활은 선교에 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있는 삶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와주시고,  
좌절과 절망 죽음,  
질병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온누리신문 」 제공 - <http://www.onnurinews.com/>